



2020학년도 등록금심의소위원회 회의록

[서울 5차]



2020. 1. 15.

서울캠퍼스
등록금심의소위원회

등록금심의소위원회(서울)		2020학년도 5차 회의록	
일시	2020. 1. 15.(수) 14:30~18:50	장소	행정관 2층 교학부총장회의실
참석위원	9명(임용호, 최재현, 송혁, 안진우, 박진우, 김동희, 이가림, 한다운, 신지원)		
불참위원			

I 주요안건

- 2020학년도 (서울)등록금심의소위원회 회의일정 및 자료요청
- 2019회계연도 추경예산(안) 및 2020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등

II 주요논의사항

1. 등록금심의소위원회 위원 구성 및 개최선언

2020학년도 서울캠퍼스 등록금심의소위원회는 위원장 교학부총장을 포함한 교직원대표 4명, 학생대표 4명, 관련전문가 1명으로 구성하였고 9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어, 위원장은 개회를 선언함.

2. 등록금심의소위원회 회의일정

서울캠퍼스 소위원회는 2020. 1. 17.(금) 10시에 6차 회의, 15시에 7차 회의를 진행하기로 참석위원 전원 동의함. 향후 일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함.

3. 자료요청

교직원대표측은 지난 2차 회의 시 학생대표측이 요청한 자료 중 제출되지 않은 다음의 자료에 대하여 제출이 가능한 지 확인하여 다음 회의 시 답변하기로 함.

- 가. 법인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체 2019회계연도 추경예산(안) 및 2020회계연도 예산(안)
- 나. 수익용 기본재산 세부내역

4. 안건

가. 쿨하우스 자금상황

학생대표측은 2020년에 상황이 완료되었어야 할 1차 기숙사의 상황기간이 연장된 사유와 쿨하우스 기숙사 대출자금 상황 기간 및 향후 연장 가능성을 묻고, 교직원대표측은 1차 기숙사의 경우 15년 상황을 계획하였으나 기숙사의 재정여건이 어려워 연장하게 되었으며 추후 연장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답변함. 또한 학생대표측은 대출 상환금액의 재원을 묻고, 교직원대표측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며

기숙사 수익으로 충당한다고 답변함. 아울러 쿨하우스 기숙사는 별도 운영회사가 있어 교비회계와는 분리되어 있다고 설명함.

나. 2018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대표 요구사업

학생대표측은 2018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공학관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하여 기금 적립 및 예산 편성 내역을 묻고, 교직원대표측은 2018학년도부터 매년 1.5억씩 3개년을 건축기금으로 적립한 후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나, 시행 시기 관련해서 대학 본부 내 의견 차이가 있어 2020회계연도 예산(안)에는 편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함. 이에 학생대표측은 2020학년에 집행되기로 약속된 사항이라 말하며 교직원대표는 시행 시기를 다음 회의 때 답변하기로 함.

다. 법인전입금

교직원대표측은 지난 4차 회의에서 학생대표측이 요청한 자료 관련하여 사학연금법 등 관련 내용을 서면 전달하고 설명함. 아울러 2019회계연도 추경예산(안)에서 법인전입금 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서울캠퍼스 법정부담금 지출 약 3.4억 감소, 글로벌캠퍼스 재정 상황 등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또한 전년도 등록금심의소위원회에서 협의된 법인전입금 5,000만원 추가에 대해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시점에 최대한 반영할 것이며 학생대표에게 공개하겠다고 답변함.

학생대표측은 법인전입금 관련하여 공시된 2019회계연도 법인일반회계 전출금 지출액과 교비회계 전입금 수입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 묻고, 교직원대표측은 중·고등학교 등 타 부속기관 전출금이 포함되어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다음 회의 때 확인 후 답변하기로 함. 또한 학생대표측은 2019회계연도 추경예산(안)의 법인전입금 감소 사유에 대한 서면 자료를 요청하며, 향후에도 추경예산 편성 시점에 법인전입금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묻고, 교직원대표는 달라질 수 있다고 답함. 학생대표는 예산 대비 추경예산에서 각 캠퍼스별 법정부담금전입금 조정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을 요구함. 아울러 2020회계연도에 법정부담금 지출액이 크게 증가하여 법인전입금 비율이 2019회계연도 대비 감소하는데 법인에서 추가로 전출할 수 있는 지 확인을 요청하고, 교직원대표측은 전입금 관련 제반 요청 사항 확인 후 다음 회의 때 답변하기로 함.

라. 계열별 차등 등록금 근거

학생대표측은 계열별로 등록금이 차이나는 사유에 대해 묻고, 교직원대표측은 교육부의 등록금 자율화 이후 그 차이가 꾸준히 유지되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정확한 근거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함. 또한 학생대표측은 현 경영대학에서 부동산학과가 분리되어 부동산과학원이 신설되는데 이러한 경우 정확한 등록금 근거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열별 등록금을 적용하는 것인지 묻고, 교직원대표측은 등록금 원가 계산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말하며 신설학과가 생길 경우 계열을 결정하는 것은 다양한 관점에서 상당한 검토를 요구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결정되지는 않으나, 부동산과학원의 경우 경영대학에서 부동산학과가 단과대학으로 새롭게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부동산학

과의 등록금과 동일한 등록금을 산정하게 되었다고 답함.

또한 학생대표측은 같은 단과대학임에도 과별로 등록금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묻고, 교직원대표측은 등록금계열 및 그에 따른 학위가 다를 경우 등록금이 상이할 수 있지만 차등등록금에 대한 명확한 사유는 없다고 답변함. 아울러 교직원대표측은 현재 학교본부에서 교학소통위원회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학교본부와 학생간의 교학소통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차등등록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나겠다고 말함.

마. 2019회계연도 추경예산(안) 및 2020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학생대표측은 2019회계연도 추경예산(안) 및 2020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 교직원대표측은 해당 내용에 대해 답변함.

1) 학생대표측은 2019회계연도 추경예산(안) 및 2020회계연도 예산(안) 지출계정에서 장기차입금상환액이 제거되고 장기차입금상환액이 신설된 사유에 대해 묻고, 교직원대표측은 해당 신공학관 관련 상환금액은 상환이 1년 이내 도래하는 유동부채이기에 계정과목을 정확하게 조정했다고 답변함. 또한 학생대표측은 신공학관 상환액이 2015년도, 2016년도로 분리되어 있는 사유와 상환 기간을 묻고, 교직원대표측은 차입시기가 달라 분리되어 있으며, 2025년도에 상환이 만료된다고 답변함.

2) 학생대표측은 2019회계연도 추경예산(안)의 통신비 계정에서 가정통신문 발송 등 일부 내역이 2019회계연도 예산 및 2020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있으나 2019회계연도 추경예산(안)에 없는 사유에 대해 묻고, 교직원대표측은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만 추경예산 편성 시점에 집행액이 없을 경우 편성하지 않는다고 답변함.

기록(간사) : 예산팀 김동연 


위 사실을 확인함


2020년 1월 15일


등록금심의소위원회


위원장 임용호 

위원 최재현 

위원 송혁 (인) 

위원 안진우 (인) 

위원 박진우 (인) 

위원 김동희 

위원 이가림 

위원 한다운 

위원 신지원 (인) 